

『아포일기』에서 나타난 농민의 근대적 관광 경험에 대한 연구*

손현주**

본 논문은 196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 『아포일기』에서 나타난 농민 권순덕의 근대적 관광 경험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과 관광의 개념, 관광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관광활동에서 드러난 양가성을 고찰하였다. 권순덕은 노동중심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여가는 낭비적인 일로 여기고 관광은 여러 곳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 중심의 관광을 한다. 권순덕이 경험한 관광활동의 특징은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 및 체험중심의 관광으로 변화를 보여 주고 있고, 가족여행과 해외여행 경험이 없으며, 공동체 연대를 증진시키는 통합적 기능이 강하였다. 권순덕에게 관광은 관광절차의 합리화와 객관화된 성적 욕망이 공존하는 양가성을 노출한다. 권순덕의 여행 전체를 살펴볼 때 여행과 관련된 자원도 풍성해지고, 여행횟수도 늘고 기간도 길어지지만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 여행이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의의는 그동안 소홀하였던 농민 관광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요개념〉: 관광, 근대적 경험, 농민, 성적 욕망, 양가성, 여가, 합리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461). 이 글은 SSK <개인기록과 압축근대 연구단>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인 “압축근대를 경험하는 동아시아: 도시와 농촌”(2015년 11월 19일)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SSK 전임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경상북도 김천의 농민인 권순덕(1944년생~)의 일기 『농민 권순덕의 삶과 기록: 아포일기 1~5』(이정덕·소순열·남춘호·문만용·안승택·송기동·진양명숙·이성호 2014; 이정덕·소순열·남춘호·임경택·문만용·안승택·이성호·손현주·이태훈·김예찬·박성훈·김민영 2015)를 바탕으로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관광을 통해서 겪게 되는 노동과 관광에 대한 개념, 관광활동의 특징, 그리고 관광을 체험하면서 나타나는 양가성(ambivalence)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관광은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필수적인 여가활동 중의 하나이다. ‘관광전성시대’, ‘여가 중심시대의 도래’ 등의 담론에서 보듯이 대중관광 및 개인관광은 중요한 현대 산업의 하나가 되었고, 사회관계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김문조 2005; 정병웅 2002). 그러나 근대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생존을 위해 주된 관심을 노동에 두는 일 중심의 사회였다(이무용 2008: 493). 이 당시 한국사회는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여가생활 중의 하나인 관광의 기회가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의 즐거움과 휴식을 추구하는 근대적 형태의 관광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기생을 중심으로 하는 “성적 즐거움의 대상으로 관광지 조선”을 여성화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자본주의와 남성지배의 논리에 의해 시작되었다(정수진 2009: 84). 제도화된 형태의 한국관광은 1960년대 국가 주도로 형성되었고, 주한미군과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벌이가 주된 관광개발의 목적이었다(최석호 2004: 126). 1980년대는 여가생활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관광생활이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는 관광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자아실현과 문화체험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여가문화가 중시되었다(이무용 2008: 494; 최석호 2004: 126).

스포츠, 독서, 등산, 영화, 낚시, 음악, 연극, 바둑 등과 같은 문화적 측면 중에서 권순덕의 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가활동 중의 하나는 관광이다. 관광은 권순덕이 근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 중의 하나여서 근대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권순덕은 관광을 통해 도시, 교통수단, 항구, 휴양지, 문화유적지, 산업시설, 전시시설 등과 같은 근대적 문물을 접하게 되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방성과 호기심을 자극 받았다. 또한 그는 관광을 통해 전통과 옛 것이 존재하는 농촌사회에서 좀 더 근대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농촌과 농촌생활을 타자화시키고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¹⁾

관광의 대중화는 한국의 급속한 근대성 발현의 결과이자 근대적 인간 형성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현상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동안 한국 관광의 근대화에 대한 연구는 관광정책(김혜숙 1991; 박찬호 2007), 관광산업(안중윤·손대현·이연택·이충기 1995; 정연국·박종호 2002), 관광의 세계화(최석호 2004, 2006), 관광역사(인태정·양위주 2006) 등과 같은 관광의 구조적·제도적·역사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관광에 대한 선행연구는 관광근대화의 제도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급속한 산업화 과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 측면의 근대적 관광 경험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일기와 같은 개인기록물은 사회구조적 변화로 야기된 개인의 의식, 태도,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생활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1) 예를 들면, 권순덕은 1993년에 동네 어른들, 부인회원들과 함께 대전 엑스포 구경을 갔는데, “오늘 구경은 사람들이 넘어 만아서 인키잇는 데는 3시간 줄을 서스 기다리야 구경을 할 수 잇쓰며 자신과 친구 돌리는 전기에너지관과 중국관, 캐볼가 지상으로 다니는 차 4가지 구경”(1993. 10. 31)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미시적 접근에 의한 개인의 근대적 경험에 대한 분석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전통적 공동체인 농촌이라는 공간과 압축근대화 과정 속에서 농민의 관광활동에서 나타난 근대적 경험의 다면적 측면을 일기 텍스트라는 질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관광, 근대적 경험, 그리고 양가성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아포일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아포일기 저자의 삶을 간단히 설명하고 아포일기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관광의 근대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광개념, 관광활동의 특징, 양가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논의를 요약하고 아포일기에서 나타난 관광을 특징짓는 행동 및 상징적 형태를 설명할 것이다.

2. 관광, 근대적 경험 및 양가성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구분이 명백한 산업사회의 발전과 여가문화가 상업화에 노출되는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경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관광활동이다. 관광 및 이동성은 근대성을 경험하는 상징적 주제이다(Wang 2000: 1). 전근대 사회에서의 삶은 특정한 지역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것으로, 관광과 이동성은 인간 조건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었다. 이동성은 비정상적인 것, 혹은 반문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전쟁, 전염병, 홍수, 기근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특정 장소에 근거하고 있는 전통사회의 규범에 반하는 것이다. 비록 상류층을 중심으로 친구·친척을 방문하거나, 오락이나 치료를 위해서 휴양지를 찾는 등의 여행은 있었지만, 정주성(定住性)은 전근대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반면에 근대 사회는 새로운 지역과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지리적·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다(Wang 2000: 43-44). 산업화의 영향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노동 생산성과 휴일의 증가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근대사회에서 여행은 자동차·기차·배·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식당·호텔 등과 같은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생기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전통적으로 근대성 논의는 베버(M. Weber)가 ‘서구, 오직 서구에서만(in the West, in the West only)’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처럼 서구 중심의 근대성 담론과 제도적 과정의 변동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분석과 깊은 관련이 있다(손현주·이태훈 2015; Inglehart, Basáñez, Díez-Medrano, Halman and Luijckx 2004: 6; Mirsepassi 2000: 1-2). 서구 중심의 근대성 논의는 서구의 문화와 역사적 경험이 근대화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비서구사회의 문화와 전통은 근대성에 적대적이거나 근대화 과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Mirsepassi 2000: 2), 이들에게 근대성이란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가 발현되어서 비서구 사회가 서구 사회의 발전경로를 답습해야 한다는 가정과 서구화된 사회의 창출을 의미한다. 거시적 접근은 물리적 조건의 변화를 강조하게 되어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장 중요한 근대화의 비전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근대적 경험과 같은 미시적 접근을 등한히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근대성 분석은 비서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근대화 경험과 비전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다양한 지역적 경험의 가능성들을 배제하여, 이들이 근대화에 끼친 공헌을 등한히 한다(Mirsepassi 2000: 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버먼(M. Berman)은 근대성이란 사회경제적 변화과정과 같은 근대화와 문화적 비전과 같은 모더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경험에 근거한 근대성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Mirsepassi 2000: 2).

오늘날 전 세계의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 양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간과 시간의 경험, 자아와 타자의 경험, 삶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경험 등이 있다. 나는 이것을 근대성이라 부른다. 근대적 환경과 경험은 지형과 인종, 계급과 국적, 종교와 이념 등과 같은 모든 범주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성이 온 인류를 단합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성은 모순적 통일성, 비통일성의 통일성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를 끊임없는 해체와 재생, 투쟁과 모순, 모호함과 고통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한다 (Berman 1983: 15; Mirsepassi 2000: 2에서 재인용).

버먼에게 근대성은 기획되고 틀에 박힌 청사진이나 프로젝트가 아니고 각 개인들이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느끼는 성찰적 경험이다. 다시 말해 근대성이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근대적 경험인 것이다. 근대성은 서구의 경험과 서구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신념일 필요가 없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대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내재적 모순성이나 다원적 대립구조를 파악했을 때 가능하다. 버먼에게 근대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지속적인 분열과 상호 모순적인 경향과 가치 등이 공존하는 개인적·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근대성과 근대적 경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버먼의 주장은 근대적 현상은 본질적으로 양가성이라는 특징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립적인 태도와 행위, 상호 배타적인 생각과 욕망, 이중 가치의 동시적 공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양가성 개념은 심리학자인 블로일러(E. Bleuler)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는 양가성을 정신분열증 증상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하였다(Raulin and Brenner 1993: 201). 개인의 성격과 내적 경험을 중시하는 심리학적 접근의 양가성과는 다르게, 사회학적 접근의 양가성은 모순적 구조로부터 파생된 모순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학적 양가성(sociological ambiva-

lence)은 머튼(R. Merton)과 스멜서(N. Smelser)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Merton 1976; Smelser 1998), 이것을 이론적으로 구체화시킨 사회학자는 바우만(Z. Bauman)이었다. 그는 『근대성과 양가성(*Modernity and Ambivalence*)』(1991)에서 한편으로 근대성을 비판하는 개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양가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Ritzer 2005: 37). 바우만은 양가성을 긴장관계에 있거나 적대적인 반대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의 인식, 지식, 행동 및 경험으로 규정한다(Junge 2008: 43).

확실성, 완결성, 이분법적 사고 등과 같은 근대적 사유체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양가성 개념은 다원주의와 모순적 상태가 가득한 근대적 관광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왕(N. Wang)은 관광은 기본적으로 양가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늘날 근대성을 비합리적인 요구와 욕망을 나타내는 에로스적 근대성(*Eros modernity*)으로부터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로고스적 근대성(*Logos modernity*)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으로 본다(Wang 2000: 39). 관광도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한다. 근대성이 갖는 구조적 양가성의 측면에서 보면, 관광의 발달은 “생활수준의 향상, 자유시간과 소득의 증가”와 같은 근대성이 가져온 풍요로움 때문에 가능했고, 다른 한편으로 “소외, 따뜻한 가정의 부재, 스트레스, 단조로움, 도시 환경의 악화”와 같은 근대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의해 촉진되었다(Wang 2000: 15). 관광은 집과 일상의 책임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자 탈출로, 근대성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Wang 2000: 15). 다시 말해 근대성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애증의 다른 표현이다(Wang 2000: 15). 관광은 이성의 세계에서 감정의 세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로고스적 근대성으로부터 억눌렸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킨다. 또한 관광객들은 여행의 진정성을 추구하지만 상업화된 관광산업

은 이득 추구를 위해 관광객의 진정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하여 관광은 관광객이 지향하는 목적과 관광산업이 제공하는 생산물과 지속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3. 『아포일기』에 대한 설명

『아포일기』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살고 있는 농민 권순덕이 직접 손으로 쓴 약 70여 권의 원고를 엮어 낸 것으로, 1969년부터 2000년까지 약 31년 동안의 세월이 녹아 있는 일상생활의 이야기이다. 권순덕은 1944년 3월 20일에 태어났으며, 권영조의 1녀 5남 중 셋째로, 위로 누나와 형이 한 명씩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셋이다. 그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마쳤으며, 1972년 스물아홉의 나이에 25세의 소농 가정 출신의 이운심과 중매결혼을 하여 슬하에 3남매(1남 2녀)를 두어 핵가족을 형성한다. 권순덕은 600평 정도의 소유지와 소규모 소작지를 경작하는 영세농으로 시작하여 벼, 보리, 밀, 축산, 과수 등의 생산을 통한 농업수입, 고속도로 및 건설 현장의 농업의 노동 수입, 그리고 국수, 자전거점 등의 겸업 수입을 통해 부농으로 계층 상승한다. 그는 농업의 급속한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업의 위기, 농민층의 하강 분해와 몰락을 근검절약의 생활,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수용과 이용, 착취수준의 가족노동 의존, 개인적 근대성(individual modernity)의 개발 등을 통해 극복하였다.

권순덕은 군대를 갔다 온 후인 25세 때부터 일기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일기작가라 할 수 있다. 『아포일기』는 권순덕에게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일기는 성공을 이루는 도구이자 성공을 위한 결심의 공간이었다. 권순덕이 일기를 쓴 첫 날 “사람이란 조금한 일이라도 취미를 부쳐서 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따고 생각

합”(1969. 1. 1)이라고 적고 있으며, 셋째 날에는 “전 세계의 갑부의 유세를 더러보면 30세 미만에 기반을 잡아서 사라간다는데 나는 35세에는 기반을 잡으리라고 결심”(1969. 1. 3)한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20대의 권순덕은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으며 일기를 통해서 성공에 필요한 하루하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상시켜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그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일기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각에 홀로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면 누구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다른 이에 대한 감사함만 남게 된다.”(『경북일보』 2013. 6. 20)고 말하고 있다. 셋째, 권순덕에게 일기는 자아형성과 크게 관련이 있다. 권순덕은 일기에서 농사일, 날씨, 선거, 정치적 견해, 애·경사, 돈 거래, 노름, 가족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을 재해석·재구성하면서, “인간은 심중하게[심중하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한다고 절시리 너켜다.”(1986. 1. 16)와 같이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이야기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란 개인에게 내재화되고 서서히 전개되는 인생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삶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과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다(McAdams and McLean 2013). 권순덕은 일기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건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족, 친척, 마을 공동체, 국가라는 맥락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그의 과거, 미래 등을 이야기할 때 현재와 관련하여 재구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넷째, 권순덕의 기억을 돕고 자신의 행동을 정리할 수 있는 메모의 기능이 있다. 그는 일기 본문과 구분하여 일기 말미에 자신의 결심, 각오, 계획,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곤 한다. 특히 월말에는 그달의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적어 놓는다.

권순덕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기는 그의 기억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또한 일종의 가계부 역할을 하여 권순덕이 채무관계 및 소득과 지출에 관한 금융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려 준다. 이러한 예는 1969년 5월 31일 일기에 잘 드러나 있다:

月末 메모

“표준말 사용”
 나에 성격을 계성[개선]하고
 표준말을 이용하며
 무선 말을 해도 침착 이께
 말을 하며 남에게 축잡피지[책잡히지]
 안깨 노력하며 6月 말까지는
 나에 성격을 180도로 병경을
 할 개혁을 새우고 있썸.

5월에 총지출	1,145원
(병아리 예방약에) (수입금)	70원

일기는 한 사람의 과거사와 그 개인이 살았던 시대를 알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일기를 통해서 현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과거의 현실을 느낄 수 있다. 일기는 성격, 사고방식, 그리고 어떻게 개인이 살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일기의 서사적 흐름(narrative flow)은 일기 저자가 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보통 이야기는 서론, 본론, 결론 혹은 도입, 전개, 정리 등과 같은 3단 구성이 일반적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등장인물들의 행동·반응, 갈등·해소, 우연성·인과성, 선·악, 반전·장면전환 등과 같은 대비되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따른다. 하지만 일기는 독자와 같은 제3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으로 하루를 성찰하는 자신과의 자유로운 사적인 대화

이다. 서론, 본론과 같은 틀이 없이 자유로운 형태가 권순덕의 일기에서도 잘 드러내고 있다:

보리밭에 인분 줌. 향군교육에 정훈교육 바딤.

교관, 아포지서 주임.

향군 보초 서는 방에 시새한 것이 억망이라서 나와 친구 일명이 술선수범하여서 보초병들이 잘 잘 수 있게 만들려 노와다.

※ 눈뽀 병한 문안 같는데 나의 생각보다 몸이 조금 나일 편이라서 기분 좋게 집으로 앳다(1969년 1월 8일).

권순덕의 일기는 전반적으로 이야기 서술의 전형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기에 표현되는 문체는 꾸밈이 없고 단조롭다. 그의 일기는 완전한 문법적 구성을 가진 서술형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서술 내용은 요점과 중심어 위주의 개조식 문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일기란 제3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자를 생각하지 않는 사적인 글쓰기 양식이라는 권순덕의 인식을 반영한다. 그는 결코 그의 일기가 세상에 책으로 출판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인 사유공간으로서의 일기는 8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변화를 보여준다. 일기의 내용에 인물, 배경, 사건들이 구체화되고 권순덕의 내적인 감정변화, 고민, 정치적 사고, 사회적인 관습과 가치, 상징적이고 감성적인 다양한 이야기 등이 등장한다. 일기의 표현도 개조식 문장 중심에서 서술식 문장이 많이 나타난다. 문장은 만연체가 됨으로써 다양한 비유가 가능해지고 권순덕의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이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도라갈런지는 몰라도 농민들 살 길이 제일 막막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 수입은 제일 적은 사람들인데 저녁으로 서너만 돼어도 화도만 하며 오륙 천은 우습게 알고 낭비만 하고 있스니 이것이 봄이 와야 업스 절 판이니 이 낭비를 기계를 해본다면 서로가 낭비를 만이 했다고 후에도 할 사람이 더로 잇따고 보는데 대다수가 별로 살라간다고 생각을 하며 나중에 돈이 궁할 끼시며 자신들이 낭비를 만이 해서 돈이 기한 줄 모르고 과용에 지출

이 만아서 그른 줄 아는 사람도 만을 꺾으로 자신은 생각을 하며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만원 사람보다 업는 사람들이 오락을 절기서 낭비를 만이 하고 있다(1986.1.17.).

1980년대 중반이라는 시기는 15년 이상의 일기를 쓰면서 권순덕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어서 서술식 및 만연체 문장이 가능했을 수 있다. 또한 권순덕에게 이 시기는 40대라는 중년의 변화된 세계관, 안정된 경제적 조건, 그리고 근대적인 자아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권순덕이 사적인 수준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주제를 공적인 수준으로 넓힐 수 있었던 것은 개인주의의 성장에 따른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년(Gary M. Kenyon)과 랜들(William L. Randall)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재구성(Restorying Our Lives)』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갖게 되는데, 단지 이야기 이상으로 이야기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enyon and Randall 1997). 이야기 거리는 개인이 경험한 파편적인 사건들을 넘어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겪은 경험과 감성이 있어야 되고, 단절적인 과거,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비전에 시간적 계속성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권순덕은 자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야기 거리로 전환하는 근대성 실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4. 근대적 관광 경험에 대한 분석

1)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광 개념

한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관광은 시대와 개인의 요구, 그리고 다양한 여행 관련 산업과 제도 등의 발전과 더불어 변해왔듯이, 권순덕에게도

개인 생애사의 발달과정과 근대화과정 속에서 관광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근대적 관광을 경험함으로써 일상의 영역에서 관광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권순덕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여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신성시하는 노동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노동과 여가를 동전의 양면으로 여기지 않고, 노동은 유용하고 경제적인 반면에 여가는 비경제적이며 노동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권순덕은 노동은 긍정적이지만 여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친구들이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쓰니 자신이 생각을 해도 너무 실속 업는 일과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음”(1980. 1. 10)하고 있으며, “농촌사람들은 구슬 같은 탐방울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뺄스들은 여행객을 실어서 준비하게 있쓰니 어뒤 일 할 마음”(1971. 4. 22)이 없다고 푸념을 한다. 또한 그는 “농부들이 제일 기분이 상케할 때는 일을 고대개 하고 집에 들어와서 온수로 새멘을 하고 땀방울을 안전희 재그하고 저녁식사 전의 그 기뻐으로 산다고”(1971. 10. 23) 말을 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은 놀이에 있다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적 관점보다는 인간 존재는 생존과 사회적 생산을 위해 땀을 흘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적 관점에서 있다. 그리하여 권순덕은 관광을 통해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기분전환을 통해 재생산의 의욕을 증진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진정한 공간이라고 여긴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여가란 남은 시간에 하는 활동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힘이 들드래도 아들딸 다 출가 식키고 우리 부부 손을 꼭 잡고 관광유람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지낼라고 작정음”(1996. 9. 1) 할 정도로 근면한 노동을 생활습성으로 지속시키고 있다. 그는 자기행복감이나 자아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여가라는 폭넓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권순덕은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관광을 휴식의 일환으로 간주하지 않

고 향락적이고 낭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나들이를 생각을 할 때에 중년 여자들은 1년에 평균 3회 이상 하고 (사십대) (70대) 이른 사람들도 3회 이상 관광을 절기며 그 나머지 우리 또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편이 된다고 본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국민은 흥청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부강을 할려면 절면 사람이 건전해야 부강을 바라는데 절면 사람들이 건전하지 못하고 흥청거리는 것을 좋아하니 부강을 바랄 수가 업따고 보니 가슴 아픈 일들이다 (1991. 8. 18).

비록 권순덕은 여가생활에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힘든 농업노동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권태로운 일상생활을 탈피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을 하곤 한다. 예를 들면 춤연습, 영화관람, 바둑, 화투, 동전치기, TV 시청, 윗놀이, 낚시 등이 있다. 춤과 영화는 권순덕이 20대 후반인 1970년대 초까지 관심을 가졌고, 바둑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주로 1970년에 친구들과 두었고, 낚시는 가끔씩 하는 여가였다. 권순덕은 농한기에 화투, 동전치기, 윗놀이 등과 같은 도박성을 띤 대중오락을 즐겨, “화투노리로 겨울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을 정부에서 아는지는”(1980. 2. 10) 모르겠다고 걱정을 한다. 권순덕은 30대 초반 즉 1970년대 중반까지는 화투와 동전치기를 많이 하였으나 마을회관에 TV가 설치된 이후로는 화투와 동전치기와 같은 도박을 등한히 하게 된다. 그는 TV시청에 대한 여가활동이 높아져 “모여 안저서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야 대는 겨울철인 줄 알든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도박을 언재 해서 하는 식으로 저녁마다 (티부이로) 저녁을 우서며 사라가니 이제는 더 진보는 안 대도 태보만 안 대면 만족”(1976. 1. 10)하면서 농촌사회가 더 이상 퇴보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좋아한다. 권순덕은 40대의 나이가 들면서 화투와 동전치기 대신에 윗놀이를 통해서 술내기와 돈내기를 자주 하게 된다. 권순덕에게 윗놀이는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는 도박보다는 전통적인 놀이로 명절에 주로 친척·친구들과 하는 오락이었으나 화투와 동전치기를 대체하면서 도박적 성격을 띤 여가활동으로 변하게 된다. 권순덕은 TV 시청, 화투, 윗놀이를 제외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권순덕의 제한된 여가활동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급속히 변하는 농촌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는 전통적인 농촌의 노동방식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농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가보다는 근대적인 기술습득과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구습이라고 생각하여 전통적인 여가활동을 멀리하게 된다. 그러나 권순덕이 화투 및 윗놀이 같은 도박성 대중오락에 심취하는 것은 농한기인 겨울의 무료함을 달래고 판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는 도박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하고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다시 도박을 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옛날부터 도박은 좋은 오락이 아니라는 전통적인 도덕윤리와 도박을 통한 개인적 요구 충족 사이의 갈등으로, 근본적으로 개인의 삶은 자율성과 능동성에 기초하여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근대적 의식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변화된 노동방식과 생활양식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가 중의 하나가 관광이다. 권순덕에게 관광의 의미는 많은 장소를 방문하는 장소의 이동성에 있다. 장소방문 중심의 여행은 수박 겉핥기식 관광을 초래하고 여유 있는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을 감상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순덕과 동네 주민들은 관광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1985년 3월 21~22일 여행에서는 1박 2일 동안 7곳(여수 오동도 → 진도교 → 목포 유달산 → 금강댐 → 전주 동물공원 → 김제 금산사 → 대전 유성온천)을 방문하다 보니 여행일정에 노예가 되어, “목포 유달산으로 가는돼 사람이 다들 지치서 구경에 형미가 엷는 것 같더라. 목포에 도착을 하니 오후 7시가 돼더라.”(1983.

3. 21)고 푸념한다. 이처럼 권순덕의 관광은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증가시켜 자아를 돌아보고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여행의 본질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형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 하루의 여행이 끝난 후인 저녁에 휴식보다는 술먹고 노름하는 것이 전부일 때도 많다. 권순덕은 장소방문 중심의 관광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패키지화되고 예정된 코스를 많이 방문함으로써 여행의 만족감을 느낀다.

2) 관광활동의 특징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관광은 필수적인 생활양식이 되었지만 권순덕에게 관광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꼭 필요한 문화생활의 일부는 더더구나 아니었다. 그는 바쁜 농촌생활에 적응하여 한 곳에 머무는 것에 만족해하였고, 경제적·시간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덕에게 관광은 자녀들인 삼남매를 위한 선물이어서, “우리 현영이가 2박 삼일 여행을 아무 탈 업씨 돌아오니 반갑더라. 그리고 멀미도 하지 않고 구경도 잘 했다고 하니 자신이 구경을 갈다 온 기분 모양 좋더라.”(1988. 4. 9)고 마냥 즐거워한다. 권순덕이 생존과 저축을 위해 관광을 멀리함으로써 일 중심의 생활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삶에 여유가 있으며, 관광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마을총회, 계모임 등을 통해 단체관광을 함으로써 마을의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한기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관광을 하게 되었다.

일기에 나타난 권순덕과 그의 가족의 관광활동(〈표 1〉 참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권순덕 가족의 관광활동은 여행의

〈표 1〉 권순덕 가족의 관광활동(1969~2000년)

1970년대 (총 2회) 당일관광: 2회	권순덕 이운심	아내 관광(1975.5.20), 보은 속리산, 대전 보은사 관광(1976.4.27).
1980년대 (총 13회) 당일관광: 7회	권순덕 이운심	아내 관광(1980.5.10), 남해대교(아내, 1982.3.20), 광주 무등산, 남원 광한루(1984.7.27). 여수 오동도, 진도교, 목포 유달산, 금강댐, 전주 동물공원, 김제 금산사, 대전 유성온천(1박 2일, 1985.3.21~22), 충무 한산도(아내, 1985.4.2), 천안 삼거리, 성불사, 독립기념관, 당진 삼교천(1987.8.15), 수안보 온천(1988.1.21), 남해군 남해대교, 여수 오동도, 순천 송광사, 김제 금산사, 유성 온천(1박 2일, 1989.3.6~7), 북한 남침용 땅굴(아내, 1박 2일, 1989.3.28~29), 포항제철(1989.12.18),
	자녀	현주 수학여행(1박 2일, 1987.6.20~22), 현영 수학여행(1박2일, 1988.4.7~9), 훈 수학여행(서울, 1988.11.1~?),
1990년대 (총 26회) 당일관광: 15회	권순덕 이운심	강원도 설악산(아내, 1990.4.4~7), 제주도(부부동반, 1990.9.12~14), 진해 빛꽃(아내, 1991.4.8), 강원도 일대(신광사 포함)(아내, 1992.4.15), 통일 전망대, 설악산, 울진 석류동굴, 포항, 경주(1992.10.6~8), 대전 엑스포(아내, 1993년 9월 16일~17), 대전 엑스포(1993.10.31), 울릉도(1994.8.27~29), 진안 마이산, 남원 지리산, 남원 민속촌(1994.9.11), 광주 비엔날레, 정읍 내장산(1995.10.11), 김천 직지사(1996.11.10), 지리산(아내, 1997.3.27), 삼척 환선동굴(1997.11.27), 경주여행(부부만의 처음 여행, 1998.4.2), 포항·경주(1998.4.13), 경주 문화엑스포(1998.9.17), 삼천포 유람여행(철도국 모집, 1999.3.22), 삼천포 여행(부녀회 주최, 아내, 1999.5.1), 동해바다 철도관광(무릉계곡과 추암 촛대바위, 1999.7.6), 부산 태종대와 용두산공원, 울산 자수정 동굴(1999.9.16), 제주도(두번째 제주도 여행, 1999.9.29~10.1), (총 21회)
	자녀	현주, 훈 수학여행(1990.5.7~8), 훈 수학여행(설악산, 1993.5.18~21), 현영 수학여행(제주도, 1993.10.19~21), 현주 대학교 수학여행(제주도, 1994.11.8~11), 훈 수학여행(제주도, 1995.11.6~9),
2000년 (총 7회) 당일관광: 6회	권순덕 이운심	설악산과 백담사(아내, 2000.4.3~4), 동해(세위돈?, 2000.4.18), 조합의 주선으로 우리 마을은 자신과 4명이 부산 청과, 부산 농협 공판장, 부산 항도청(조합 주선, 2000.7.20), 무차포 해수욕장, 무령사, 부여 낙화암(2000.9.1), 부산 청과, 경주 엑스포(2000.9.27), 대구 팔공산 갯바위(부부여행, 2000.11.5). 문경 석탄박물관, 수안보 온천(아포 농협, 2000.11.16).

성격이 패키지화된 단체관광에서 소집단화된 관광, 개인단위 관광, 체험 중심의 관광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1970년대의 권순덕 가족은 여행지를 알 수 없는 아내의 관광을 포함하여 75년, 76년 단지 2번의 여행을 하였다. 이 시기의 여행은 전통사찰과 같은 문화유적지를

주로 방문하였고, 기본전환과 친목도모를 위한 사교활동의 성격이 강하였다. 1970년대는 권순덕이 결혼을 한 후의 가족 형성기로 소농으로 농사를 짓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 미래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이다. 이 당시 한국의 관광개발은 외국인 중심의 관광시대였고 ‘서울 구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행은 일반 대중들에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

1980년대는 권순덕에게 자녀 양육기와 자녀 교육기 초반의 시기였다. 권순덕 가족은 학령기인 자녀들의 수학여행을 포함하여 총 14회의 관광을 하였고, 관광 횟수가 1970년대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관광횟수가 증가한 것은 권순덕 개인 소득의 증가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관광의 수요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광 전략이 “외래관광객 유치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로 전회되면서”(문화체육관광부 2011: 11) 대중관광의 시대가 시작되어 관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권순덕의 여행은 자연명승, 문화유적지, 휴양지, 땅굴(안보관광), 산업시찰 등으로 여행장소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 수안보 및 유성 온천, 땅굴, 포항체절 등의 관광은 여행사의 기획상품으로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른 주최여행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행의 목적도 기본전환 및 친목도모 외에 휴식 및 교육체험지향도 함께 추구되고 있다.

1990년대는 관광이 총 26회로 1980년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권순덕에게 90년대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대학생인 자녀 교육기 및 독립기 시기였고, 그가 부농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획득한 때였다. 국가적으로는 국내외 관광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부흥하여 관광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국민관광의 시대였다(정병웅 2002: 138). 1990년대 권순덕 여행의 특징은 지금까지 제주도여행이 쉽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2번이나 갔다 왔고, 자연명승 및 전시시설 중심으로 관광을 하였다. 특히

그는 대전 엑스포, 광주 비엔날레, 경주 문화엑스포 등과 같은 기술 및 문화자원과 연계된 지역축제에 참석을 하였다.

권순덕에게 2000년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떠나버린 노후기로, 여행의 한 해라 칭하여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1년 동안 총 7회의 여행을 하였다. 이 시기는 자연명승, 문화유적지, 휴양지, 박물관, 수산물 시장 및 농업 공판장 등을 여행하여 교육, 행락, 관람, 휴식 등 다양한 여행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2000년은 관광의 세계화, 문화로서의 관광이 강조되면서 관광의 다양화와 개성관광이 중시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권순덕의 관광의 성격도 조금씩 개인여행과 목적여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전통적인 대중관광이란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빌려서 표준화되고 패키지화된 형태로 여러 관광명소를 구경하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권순덕의 여행도 전통적인 단체관광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가 방문한 여행지를 살펴보면, 자연명승 및 경관감상, 문화유적 및 사적지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위락·휴양 관광, 전시시설 및 예술 관람, 산업시설, 안보관광(땅굴 방문) 등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권순덕의 여행의 성격이 개별화, 다양화를 보여 주고 있다. 권순덕의 여행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단체 관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98년 처음으로 아내와 단 둘이 하는 부부여행을 가게 되어, “우리 부부는 둘리서 여행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관광은 부인과 단 둘리러서 그른지는 몰라도 절거운 여행이라고 생각을”(1998.4.2) 하게 된다. 2000년 11월에는 두 번째로 부부만이 하는 대구 팔공산 갖바위 여행을 한다. 또한 2000년에 들어와 2번에 걸쳐 부산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견학하는 교육관광을 하였다. 그리하여 관광의 의미가 다른 지역의 유형·무형의 자연 및 문화적 관광자원을 단순히 소비하는 욕구의 해소행위에서 관광자원의 참뜻을 경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만남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권순덕의

관광은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으로, 사교활동 목적에서 휴식,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여행 목적을 추구하였고, 그리고 관광장소의 성격도 자연 명승 및 문화유적지 중심에서 위락, 휴양, 산업시설, 전시시설 등으로 변화였다. 그리하여 그는 문화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야생동물관광, 쇼핑관광, 업무관광 등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대안관광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자아를 성찰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질적인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권순덕의 관광은 가족여행 및 해외여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기개발적·휴식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농촌 공동체나 특정 조직의 연대를 증진시키는 통합적 기능이 강하였다. 자녀들의 수학여행을 제외한 권순덕과 그의 아내의 여행 유형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 기간에 의한 분류를 보면, 75%가 당일 여행을, 25%가 숙박여행을 하여 숙박여행보다는 당일여행을 선호하였다. 당일 여행은 숙박여행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농민인 권순덕은 장기 여행보다 단기 여행을 하였을 것이다. 권순덕이 행한 여행기간은 한국 국민의 그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권순덕의 일기에서는 2번의 부부여행을 제외하고 가족 전체가 관광을 하는 가족여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핵가족이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 등장하면서 가족은 중심적인 여가집단이 되었고, 가족여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황희정 2008: 118). 한국 국민들의 전체 국내 여행 중 가족·친지와 다녀오는 가족여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족여행은 가족관계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윤소영·윤지영 2003; 한국관광공사 2009: 6). 권순덕의 관광여행은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가족중심의 여행과는 다르게 마을 주민조직 중심의 단체여행을 주로 하였다. 그는 가족들과의 관광여행을 즐기는 것보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익한 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순덕은 그의 삶의 목표가 가족의 행복임

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여행을 등한히 한 것은 대외활동에서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교 중심의 가부장적인 농촌사회에서 지나친 가족에 대한 관심은 남성의 체면과 체통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권순덕 관광여행의 또 다른 특이점은 그가 국내관광만 했지 해외관광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 개최,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세계화의 물결 등으로 해외여행이 국내여행 못지않은 여가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이무용 2008: 495). 1990년 해외여행자 수는 1990년에 약 121만 명, 2000년에는 약 550만 명으로 인구대비 각각 3.6%, 11.7%를 차지하였다(정병용 2002: 145). 1990년대 이후로, 한국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덕이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촌의 특성, 초등학교 교육수준에 근거한 외국문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부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외국 여행은 낭비라는 의식 등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권순덕에게 여행은 자연경관이나 유명한 장소를 구경하는 것으로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소비하는 공간의 거리 두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같은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여행의 낭만성, 감성적 측면보다는 여행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주기적인 행사로 마을의 강한 연대성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측면이 강하다. 관광의 동기는 한두 가지 사실로 규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관광이 마을 자치조직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도 관광이 마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 절면 노소 업시 40명이 무창표와 무령사, 부여 낙화암, 관광을 잘 갔다왔다. 그리고 절면 사람들은 잘들 놀드라. 관광도 마을 단체 가는 것도 동네 하합도 돼고 유대를 할 수 잇는 기해라고 생각을 이룬 여행은

동네 단합을 위해서는 상당이 도음이 대리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부부는 이번관광을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다(2000. 9. 1).

3) 양가성

권순덕의 관광활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양가성은 관광활동의 합리화와 객관화된 성적 욕망의 상호모순적 공존이다. 권순덕의 관광활동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합리성에 의해 여행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여행일정과 농한기라는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등 이성에 근거한 체계적인 여기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즉흥적이거나 관광지에 대한 정보 부재와 같은 비합리적인 측면이 최소화되는 과정이었다. 권순덕이 사는 공동체의 관광은 공식적·비공식적 마을 조직에 의해 주관되었다. 관광을 주도하는 마을 주민들이 교통편, 숙박시설, 기타 편의시설들의 이용에 대한 계획을 관광회사와 사전에 조율을 하게 되는데, 권순덕은 1994년 8월에 단체관광 흥정을 하면서, “오후는 구 동장과 돌리서 울릉도 예약을 하로 같쓰며 예약을 하는돼 가격은 남추지 못하고 달라는 돈을 다 주고 좀 잘해달라고만 하고 마랐다.”(1994. 8. 19)며 관광회사와의 계약에 불만을 나타낸다. 관광을 위해 여행경비 지출, 여행 동안 먹을 술과 음식물 준비 등을 통해서 관광경험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짜임새 없는 관광계획에 대해 짜증을 내기도 한다.

오후에는 내일 광주로 여행 간다고 돼지 잡는 일을 하여쓰며 오늘 돼지 102斤[근] 짜리를 잡아다. 여행 준비로 돼지 잡는 일은 좋지만 확실한 구경 갈사람의 수을 모르고 잡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여행 준비도 동신회원에서 주최해서 가는데 명확성이 업고 두서업는 주최가 돼어따고 본다(1995. 10. 10).

권순덕은 관광이 끝나면 항상 ‘속풀리’ 혹은 ‘속푸리’(뒤풀이)를 하

는데, 동네주민들과 점심이나 술을 하면서 여행경비를 결산하는 등의 여행 뒷마무리를 한다. 마을 주민들은 반복적인 여행계획, 예약, 준비과정, 뒤풀이 등을 통해서 관광을 위한 새로운 절차와 체계를 만들고 관광생활의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관광생활의 합리화는 마을 수준을 넘어서서 권순덕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개별적 근대적 주체성 형성과 같은 근대적 인간의 특성을 보여 준다. 권순덕은 오락 및 친목을 위한 농촌조직의 하나인 계(‘동신계’)를 통해 자주 여행을 하게 된다. 그는 관광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 대한 잠재력, 자율성 및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번 구경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과취했다고 생각을 하여본다. 남들이 너무나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아 쓸근데 이번 관광을 하면서 나의 잠재력을 발휘 했다고 생각을 한다. 외나 사회보고 노래까지 다들 잘한 다면서 나의 목소리를 불버하는 사람이 잇스니 자신은 이번에 가취 했다고 생각을 한다(1992. 10. 8).

권순덕의 관광 활동은 새로운 사상과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그는 기술적인 혁신과 삶의 진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삼교천 방조제를 구경했을 때 그것의 규모와 실용성에 감명을 받아 “수문을 한 것을 보니 웅장하며 정말 물 심이 저려께 센가 하는 생각이 들며 먼저 와서는 그저 둘러본 정도여는돼 이번에는 수문을 상세하게 본 셈이며 이제는 관광을 가면 여사 보고 오는돼 이제는 생각을 만이 하는 관광객이 돼어야 하겠다.”(1987. 8. 15)고 다짐한다. 권순덕이 기차를 이용해 포항제철 관람을 할 때, 일반열차로는 여행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낄 수 없자, “철도청에도 관광객을 유치할려며 별도로 관광차를 만들어서 시설만 잘한다면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1989. 12. 18) 있다고 생각하면서 관광전용열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전통적인 농민들은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수용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권순덕은 관광이 주는 다양한 문물과 기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권순덕의 개방성은 아내의 관광생활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아내가 농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 주고,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여 아내의 관광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권순덕의 아내의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아내가 어려운 농촌생활에서 안정성을 갖고 더 열심히 농업활동, 가사노동, 육아노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내 이윤심은 자녀양육(1976. 5. 1), 여행비용(1980. 5. 10), 차벌미 등과 같은 건강상의 사정(1980. 5. 10, 1982. 3. 20, 1985. 4. 2), 기타(1989. 3. 28) 등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주저한다. 권순덕은 이처럼 여행을 망설이는 아내를 설득하여 관광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아내 이윤심은 남해대교(1982. 3. 20), 충무 한산도(1985. 4. 2), 안보관광(땅굴 구경, 1989. 3. 20), 설악산(1990. 4. 4), 진해 벚꽃 구경(1991. 4. 8) 등 다양한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심지어 권순덕은 20,000원의 빚(1980. 5. 10)을 내어서 아내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여행하는 아내를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리고 집사람이 설악산 2박 4일 동안 여행길에 갈때 오늘따라 낚씨가 추어서 여행에 불편하지만 안는가 염려가 돼며 항상 멀미를 하여서 관광을 가도 마음이 노이지 않으며 시달림을 받는 생각을 하며 내 고통이 심하며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사로 생각을 할려고 해도 그것이 돼지 않으며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부의 정인가바(1990. 4. 4).

권순덕이 관광을 통해서 표출하는 다른 면은 성적 욕망의 발산을 통한 새로운 경험이다. 관광은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지 간에 일상생

활에서 벗어나 즐거움, 놀이, 쾌락과 같은 새로운 욕구에 대한 만족이 기대된다. 근대적 인간 이미지를 상징하는 주제인 낭만적 사랑과 연애는 육체적 정욕이라는 새로운 애정의 형태를 동반하여 관습에서 벗어나 자율적 개인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권순덕이 지향하는 성적 욕망과 행동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는 엄격한 금욕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 동네에서 친구들과 춤 연습(1971. 3. 11; 1971. 3. 12)도 하고, 어떤 때는 동네 처녀들과 함께 춤을 추는(1971. 3. 15) 등의 비교적 연애에 개방적이고 남녀의 연애나 성(性)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순덕의 일기에는 1980년대까지 성욕, 욕정, 음란, 외설 등의 성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성적 욕구의 대상을 상징하는 ‘술집 아가씨’ 단어는 대중관광이 시작되는 1980년대 이전에 1회 등장한다. 권순덕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아가씨 있는 술집에 가서 먹지도 못하는 술에 취하고 노래하며 술집 아가씨 옆에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그 아가씨 남자 다루는 데도 터파고 생각을 하며 그 지능적인 머리를 다른 데 쓴다며 사랑 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아기작이한 말 남편에게 한다면 복 바들 사람인데 그 추잡한 술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상한 감이 들더라.”(1979. 4. 18)고 말한다. 일기는 권순덕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과 성적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한 논의를 자제하고 금기시한다는 점과 근면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고 술과 도박 등을 낭비로 생각하고 죄악시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성규범을 주장하는 계몽주의적 금욕주의 입장에 있다 할 수 있겠다.

권순덕의 계몽주의적 금욕주의 세계관은 1980년대 관광의 횡수가 빈번해지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권순덕은 동네 청년들만 가는 1박 2일의 관광에 대해 “아이들마냥 바람난 처녀 모양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일 정도로 들떠 있었고, 여행 후에 김천시에서 밴드와 더불어 술판을 벌이고 신나게 여흥을 즐긴다(1989. 3. 5). 권순덕이 언급한 ‘바람난 처녀’는 육체적 타락과 퇴폐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관광지는 육체적 쾌락과 성적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일탈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저녁 식사를 하고 다들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여자들이 제주도 와서 잠 잘라고 여기 왔는가 하며 여자들이 노래를 부러면서 놀든가 디스크 홀에 가자고 아우성”이어서,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클럽에 가서 춤추고 “성행위 시범을 보이는 여자들”도 구경한다(1990. 9. 12). 관광은 일상의 권태로움과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추구하는 것에서 쾌락과 개인적 욕망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공간으로 변화된다. 권순덕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담론과 성적 지향은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관광지에서의 성적 담론과 관심은 용인되고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권순덕은 1992년 통일 전망대를 경유하는 설악산 관광을 동네주민 35명과 갔었을 때 밤에 몰래 동네 주민 6명과 속초에 있는 아가씨가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거금 25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술상을 바다서 술을 먹는데 아가씨 둘리가 술가 안주를 먹는데 매달을 볼면 사람모양 부어라 마쉬라 하는데 엽해서 보기가 급이 날정도며 정말 잘먹는다 하는 생각밖에 업드라. 아가씨 딱 들어오더니 처음부터 내 부럽에 가대 안드니 가진 예교을 다부리고 잇쓰며 가진 외을 쓰고 잇쓰니 나 자신 돈 때문에 놀지 못하는 내가 마음이 부끌어저고 잇드라. 그러저 부러자만 두고 옷을 다 벗드라... 오늘 저녁도 역시 아가씨가 무렵에 안저서 별짓을 다하며 알몸에다 부러자만 딱 걸치고 잇쓰니 생각보다 승해보이며... 자신도 놀기는 좋아하는 잇찌만 오늘 같은 날은 과정 지키고 잇는 과장으로 할 일이 안돼며 이것은 한쪽에서 명들고 잇다고 바야한다. 남자가 외이 여자 몸을 실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업따고 바야하며 사람이란 예이을 가지고 살아가야 가정도 바로 돼고 삶매 생활 운택하여 저며 부부생활도 절거어 저며 서로가 소중이 일생일 살라가지 그리치 않으며 삶매 생활이 바로 똬 수가 업따고 본다. 내 알몸의 여자를 가지고 하로밤을 절급게 노라찌만 이것은 하로만 절급찌 그 이상은 절거운 일

못한다고 본다. 내 자신 저녁에 생각을 하여찌만 과정의 한구석에 불씨를 띠려뜨린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라서 아푸른 절때 이른 술집배는 가지 않께다 (1992. 10. 7).

권순덕은 속초의 아가씨 있는 술집을 통해서 쾌락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즐기면서도 관광객의 욕망과 쾌락으로 객관화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본인이 성적 욕망을 소비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동과 성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객관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술집 아가씨들의 성적 행위를 대상화하고 권순덕 본인의 욕망도 관광객의 욕망으로 타자화시킨다. 일상생활이라면 이러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관광지였기에 가능한 사건으로 치부한다. 그리하여 권순덕은 수동적인 성적 욕망의 행위를 보여 주고, 연극이나 어떤 이벤트를 구경하는 관찰자처럼 술집 아가씨와 자신의 행동을 묘사한다. 그는 성적 욕망과 실천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방식을 성찰할 수 있는 성적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인 구속을 받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지 못한다. 권순덕의 성에 대한 규범 내지 의식은 관광지에 들어가는 순간 바뀌어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규범은 변형되어 일탈의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여 저항하는 것이 없이 단지 고민하고 염려하는 정도이다. 그는 항상 술자리가 끝나면 성적인 욕구를 위해 돈을 낭비하고 쾌락에 빠진 것에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여성은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고 부차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 일탈과 새로움으로 상징되는 관광에 대한 동경과 이미지가 중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 때문에 억압되었던 성적 욕망과 행동이 관광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성적인 담론을 말하고 성적인 욕망을 분출해도 된다는 개인의 내면화와 이것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상

업화된 관광산업이 성적 욕망에 대한 왜곡된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농민일기에서 나타난 관광의 근대적 경험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권순덕이 인식하는 노동과 관광의 개념, 관광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관광활동에서 드러나는 양가성을 조사하였다. 권순덕은 노동중심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노동과 여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여가는 낭비적인 일로 여겨 노동만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준다는 호모 파베르적 사고를 하고 있다. 권순덕에게 관광은 여러 곳의 장소를 방문하는 장소의 이동성이어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 중심의 관광을 하고, 관광지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지식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근대화의 과정에서 권순덕 문화생활의 일부가 되어간다. 권순덕 가족이 경험한 관광활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패키지화된 단체관광에서 소집단 관광, 개인관광, 체험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둘째, 가족여행과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농촌 공동체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기능을 중시하는 농촌주민들의 관광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정상적 공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한 이성적 행위와 관광활동에서 욕망·욕구·감정이 지배하는 에로스적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갈등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권순덕에게 관광은 관광생활의 합리화와 객관화된 성적 욕망이 갈등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양가성을 노출한다.

권순덕의 여행 전체를 살펴볼 때 여행과 관련된 자원도 풍성해지고, 여행횟수도 늘고 기간도 길어지고, 여행목적도 기분전환과 사교활동에서 휴식 및 교육체험을 중시하고, 여행장소도 참으로 다양해진다. 권순

덕은 다양한 여행 경험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근대시민의 주체로서 주체의식을 높여왔다. 관광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낭비적인 것을 줄이고 적절한 절차를 중시하여 합리성을 확대하고, 동네 주민들과 협력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광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효능감을 넓혔으며, 기술적인 혁신과 아내의 관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삶의 진보와 여성의 새로운 문명에 대한 노출을 위한 새로운 사상과 흐름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권순덕의 태도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대적 인간이 갖는 특성의 일면을 드러낸다.²⁾ 다시 말해, 관광을 통해서 근대적 문화양식을 경험하게 되고 근대적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하여, 전통적 개인이 근대적 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이자 통로가 되었다. 하지만 권순덕은 근대적 관광을 통해서 관광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관광의 상품화에 의해 관광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정해진 일정에 쫓기다 보니 짜여진 시간에 여행이 진행되는 수동적 관광이 되고, 자유로움의 확대보다는 자유가 없는 여행이 되고,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비적이고 쾌락적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관광지의 역사적·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 여행이 부족하였고, 마을 공동체의 연대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난 사적인 영역의 형성과 발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3일

2) 잉켈스(A. Inkeles)는 근대적 인간이 표출하는 태도, 가치, 행동방식의 특성으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부모의 권위로부터 독립, 그리고 공적인 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들고 있다(Inkeles 1969: 208).

참고문헌

김문조

- 2005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3),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혜숙

- 1991 “한국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진행정책을 中心으로,” 『정책과학연구』 3: 259-282.

박찬호

- 2007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관광자원 개발정책 중심으로,” 『한국관광정책』 30: 23-27.

손현주 · 이태훈

- 2015 “한국의 압축근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시아 압축근대 비교연구: 개념, 사회변동』 2015년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pp. 14-21

안종윤 · 손대현 · 이연택 · 이충기

- 1995 “한국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연관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1): 123-142.

윤소영 · 윤지영

- 2003 “가족여가의 활동유형 및 본질에 대한 연구,” 『여가학연구』 1(2): 11-31.

이무용

- 2008 “제7장 관광 및 여가활동,” 『한국지리지 총론편』,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pp. 493-548.

이정덕 · 소순열 · 남춘호 · 문만용 · 안승택 · 송기동 · 진양명숙 · 이성호 편

- 2014 『농민 권순덕의 삶과 기록: 아포일기 1·2권』,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정덕 · 소순열 · 남춘호 · 임경택 · 문만용 · 안승택 · 이성호 · 손현주 · 이태훈 · 김예찬 · 박성훈 · 김민영 편

- 2015 『농민 권순덕의 삶과 기록: 아포일기 3·4·5권』,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인태정 · 양위주

- 2006 “세계체계이론을 통한 한국 근대 국민관광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8(4): 173-189.

정병용

- 2002 “관광전성시대, 한국 국제관광의 위상과 역할: 현대 관광에 대한 역사 사회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4: 127-152.

정수진

- 2009 “관광과 기생: ‘전통예술’의 성립에 관한 일 고찰,” 『민속학연구』 25: 77-96.

정연국 · 박종호

- 2002 “관광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에 관한 이론연구,” 『관광서비스연구』 2(1): 207-224.

최석호

- 2004 “Giddens의 근대성 이론으로 분석한 한국의 관광자원개발 과정: 근대관광의 세계화와 한국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논의,” 『관광학연구』 28(1): 125-143.
- 2006 “관광의 세계화: 유산관광개발 한·영 비교사례연구,” 『관광학연구』 30(3): 29-49.

황희정

- 2008 “가족여가문화에 내재된 가족 담론의 위험성 고찰: 가족여가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0(2): 117-134.

Berman, Marshall

- 1983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Inglehart, Ronald, Miguel Basáñez, Jaime Díez-Medrano, Loek Halman and Ruud Luijkx(eds.)

- 2004 *Human Beliefs and Values: A Cross-cultural Sourcebook Based on the 1999-2002 Values Surveys*, Buenos Aires: Siglo XXI Editores.

Inkeles, Alex

- 1969 "Making Men Modern: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5(2): 208 - 225.

Junge, Matthias

- 2008 "Bauman on Ambivalence: Fully Acknowledging the Ambiguity of Ambivalence," in Michael Hviid Jacobsen and Poul Poder, eds., *The Sociology of Zygmunt Bauman: Challenges and Critique*, London: Ashgate, pp. 41-56.

Kenyon, Gary M. and William Lowell Randall

- 1997 *Restoring Our Lives: Personal Growth Through Autobiographical Reflection*, Westport, CT: Praeger.

McAdams, D. P. and Kate C. McLean

- 2013 "Narrative Ident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3): 233-238.

Merton, R. K.

- 1976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Other Essays*, New York: Free.

Mirsepasi, Ali

- 2000 *Intellectual Discourse and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Negotiating Modernity in Ira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ulin, Michael L. and Viktor Brenner

- 1993 "Ambivalence," in Charles G. Costello, ed., *Symptoms of Schizophrenia*, New York: John Wiley, pp. 201-226.

Ritzer, George(ed.)

- 2005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Smelser, Neil J.

- 1998 "The Rational and the Ambivalent in the Social Scie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1-16.

Wang, Nin

2000 *Tourism and Modernity: A Sociological Analysis*, Oxford: Pergamon.

자료

『경북일보』, “시골농부가 기록한 농촌 근대사,” 2013. 6. 20일자.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24524&sc_code=1424856045&page=24&total=4192(2015년 12월 4일 접속).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09, 『가족여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관광공사.

〈Key concepts〉: tourism, modern experience, farmer, sexuality, ambivalence, leisure, rationalization

The Experience of Modern Tourism in the Diary of Apo

Son, Hyeonju *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a Korean farmer underwent modern tourism, focusing on the concept of labor and tourism, tourist activities, and ambivalence, from 1969-2000 dur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the Diary of Apo. Gwon Sun-Deok, who is an author of the Diary of Apo, considered leisure as an useless activity based on his labor-centered perspective. His definition of tourism is focused on visiting attractive places rather than authenticity of the tourist experiences. In the modern tourism of Gwon Sun-Deok, two main features are identified: (1) Gwon's mass tourism practices slowly changed to small group tour and experience tourism, (2) He had no experience of family trip and overseas travel, and his tourism emphasized the integral role of tourism for the rural community. The apparent manifestation of ambivalence in Gwon's tourism practice comes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rationalization of tourism process and objectified

* Research Fellow,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exuality in the tourist site. In the general sense, on the one hand, his tourism experienced continued growth and deepening diversification, on the other hand, it revealed the lack of real meaning of tourism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culture of tourist sites.

